

84年度 日本 電子工業의 展望

編輯者 註：本稿는 12兆인 産業으로 成長한지 이미 오래 되었으며 電子 部門의 尖端 技術로는 世界 最高의 위치에 있는 84年의 日本 電子工業의 이모저모를 要約하여 紹介하므로써 우리나라 電子工業人 모두가 한결같이 業원하고 있는 새로운 發展 方向 모색에 參考資料로 제공하니 유익한 活用이 되길 바란다.

1. 經濟概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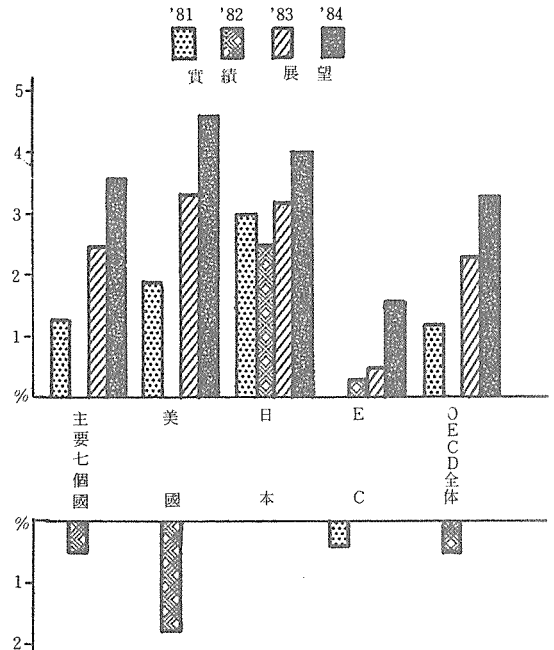
바라진 新年은 國際緊張이 높아지는 情勢에 있다. 이러한 經濟를 混亂시키는 亂氣流 속에서 世界經濟의 潮流는 上昇을 향하고 있다. 미국을 위시하여 日本, 西歐 등 先進國의 회복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세계에 널리 퍼져 技術革新이 活性化를 가져왔다. 日本經濟는 수출주도형으로부터 內需의 個人消費, 設備投資가 덧붙여 3개의 支柱가 擴大路線에 있다. 技術革新으로 先進된 産業의 高度化를 이루어 스케일이 큰 繁榮時代를 맞이하였다.

세계경제는 3년에 걸쳐 長期不況을 탈출, 回復路線에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先進된 미국경제가 강력히 상승을 계속하여 세계 GNP의 4분의 1을 點할뿐 아니라 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통상적인 예에 따라 경제전망을 작년말에 발표하였다. 실질 GNP 성장율은 82年의 마이너스로부터 83年은 2%臺의 성장으로 바뀌어서 84年은 3%臺로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서 리더役을 맡는 미국은 83年에 3.3%로부터 84年은 4.6%로 계속 신장하여 선진 7개국 및 OECD 전체의 성장률을 끌어 올리게 될 것이다.

미국에 따르는 경제회복은 캐나다, 日本, 그리고 EC의 英國과 西獨에도 미칠 것이다. 北美, EC, 日本은 3大 경제권으로 이 3大 경제권이 회복된다면 세계경제도 확대노선에 오르게 된다.

世界經濟의 實質 GNP



발전도상국도 영향이 크다. 先進國용의 수출이 늘면 第1次產品의 시황도 좋아지며 세계의 어두운 面으로 작용하고 있는 외채 누적國은 국제수지가 개선되어 위기감이 얽어지며 產油國은 석유수급의 호전으로부터 逆오일 쇼크의 탈출이 가능하여진다. 따라서 先進國을 軸으로 한 세계경제는 확대의 순환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문제점으로서 是 미국의 재정적

자, 무역적자가 기록적이며 경기가 예상 이상으로 호전된다면 억제적인 금융정책을 견지하여 高金利를 시정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자신의 경기 억제작용과 함께 달러高로 인한 세계경제 회복 지연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中東은 이란革命이래 해를 거듭할수록 복잡한 양상을 더하여 가고 있다. 이란·이라크전쟁의 장기화, 레바논 정세의 파문이 넓어지고 있다. 최대의 석유지대에 일고 있는 波亂要因으로 不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경제는 작년 83年 下半期부터 회복국면에 들어갔다. 경제의 순환변동으로부터 84년은 확대기에 들어가 성장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은 기술혁신의 조류, 내외시장의 확대에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의 물결이 높아지고 있다.

일렉트로닉스화의 進展, 新素材와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개발을 핵심으로 새로운 산업혁명을 생각해 한다. 산업구조의 변혁을 가져와 정제산업은 신기술의 분야에 활성화를 구하고 있다. 기술혁신은 산업의 활성요소가 되어 경제성장의 최대요인이 되고 있다. 新年은 신기술이 이어져 開花되는 懷妊期에 들어간다. 작년 83년의 실질 GNP 성장률은 3%臺, 新年은 적어도 4%臺를 넘을 것이다.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기술혁신에 의한 산업의 구조변혁은 생산성을 향상시켜 제품의 附加價値를 높였다. 수요면으로부터 경기자극은 작년의 경우에는 수출 일변도였다. 미국의 경기상승을 중심으로 세계경기가 회복되는 해외환경의 호전을 배경으로 수출의 增勢는 계속될 것이다. 中南美, 中近東, 아프리카 등 경제부진 지역은 신장이 늘지않을 것이나 北美와 東南亞의 2大市場을 비롯하여 西歐, 共產圈은 늘어날 것이다.

수출업종도 전자공업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증대할 것이다. 수출주도형의 경기회복이 작년이라면 금년은 内外需 一體의 경기상승으로 변할 것이다. 内需에 있어서도 재정긴축의 공공투자는 기대가 적다. 5년 연속의 마이너스의 주택투자도 소득과 주택가격의 격차가 가져오는 어

려운 문제이다. 内需擴大 역시 개인소비와 기업 설비투자를 꼽을 수 있다. 개인소비가 높아지는 要因은 所得增加와 消費마인드의 상승, 소정의 노동시간으로부터 소득증가, 고용개선 등에 기인된다. 기업수익의 향상으로 보너스 증가는 금년 여름부터 더욱 두드러져 물가의 안정은 소비 마인드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다.

설비투자가 높아지는 요인도 많다. 높은 연구 속에 나오는 素材産業의 회복, 대량의 전력이 투자계획을 확대하였다. 기술혁신의 분야에 선행투자가 계속 높아지며 기업수익의 향상, 금리저하도 투자의욕을 자극하는 要因이다. 수출, 개인소비, 설비투자의 민간활력이 기술혁신과 합쳐져 경제성장을 추진한다. 이들 3個 支柱의 경기자극 효과는 크며 内外需가 一體로 되면 경제확대의 노선으로 달리게 된다. 경기의 총화를 나타내는 것은 企業收益이라 할 수 있다. 83年度 상반기는 낮았으나 하반기에는 대폭 상향되었다. 특히 不況이 긴 化學, 섬유, 철강, 석유 등 素材産業의 回復이 기여하는 바 크다. 84年度는 전반적으로 일단 밝게 보여진다. 内外의 경기회복이 매상을 늘리고 오일가격 인하로 코스트가 싸진다. 製品의 市況回復과 가격상승, 기업의 체질개선 다각화와 신부문의 성장 등이 相乘效果를 낼 것이다. 경제는 잠재적으로 성장력을 지니고 顯在化하는 것은 技術革新과 市場擴大에 있다. 금년은 과거 3年間에서 본다면 밝아질 것이 확실함과 함께 高度의 大型 繁榮時代가 막을 열 것이다. 산업의 구조변혁은 진전되고 이것을 선도할 공업은 전자공업이다.

2. 家庭用 電子機器

국내에서는 뉴미디어 關聯市場의 擴大, 海外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으로 금년은 오랜만에 家庭用機器 분야에도 밝은 전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國內, 海外와 함께 과제도 있다. 國內은 成熟商品, 新規商品과 함께 평균단가의 下落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하는 것이 과제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예상되는

特別企劃：1984年 世界市場을 총점검한다

수출의 증가가 일단 무역마찰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어쨌든 금년은 家庭用 電子·電氣機器의 생산은 昨年比 7~8%臺의 伸張을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國內의 家庭用 機器의 작년 판매액은 4%強의 成長을 추정하고 있다. VTR의 50%增加, 여름商品, 난방상품의 豫상을 넘는 판매 증가가 그 원인이다. 그러나 기타 태반의 상품은 물량면에서 증가하여도 판매액은 늘고 있지 않다. 따라서 VTR과 계절상품에 의하여 4%臺의 成長率이 전망된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한편 수출은 특히 하반기부터 豫상을 넘어 증가하였다. 그 최대의 원인은 美國의 경기부상에 있다. 國內의 성장을 크게 상회하는 8%의 成長이 되었다. 商品別로 보면 VTR과 電子렌지를 톱으로 한다.

화이트 상품의 신장도 두드러진다. 이 결과 작년의 家庭用 電子電氣機器 生産은 재작년을 약 6% 상회하는 5兆 5,200億圓을 상회하였다. 그 가운데 電子機器가 3兆 8,000億圓, 電氣機器가 1兆 7,000億圓이다.

□ 國內市場은 5%成長

그러면 밝아지는 市場은 어떻게 될 것인가? 國內은 成熟商品은 계속하여 보합수준에서 이루어질 基調이며 季節商品은 일기에 左右되는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신장을 접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VTR, 其他 뉴미디어 關聯商品에 기대는 크다. 뉴미디어는 금년 새로운 SHF 衛星放送, Captain 시스템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덧붙여 패키지系 뉴미디어로 불리는 홈 퍼스컴은 VHD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가 본격적으로 판매되었다. 또한 光方式의 플레이어도 數個社가 새로이 參加할 전망이다. 오디오의 CD(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도 판매 3년을 맞이하여 30萬臺 가까이 需要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뉴미디어가 AV상품에 어떠한 자극을 줄 것인가 예측하기 어려우나 國內市場 全體에서는 昨年比 5%臺 정도의 成長이 전망되고 있다.

□ 生産額 5兆 8,500億圓

한편 수출도 작년보다도 成長率이 약간 높아질 것이다.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어 歐洲市場에도 프랑스 등 一部國家를 除外하고 경기가 상승방향에 있다.

또한 미국 경제의 과급영향이 큰 동남아제국도 꽤 높은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輸出은 작년비 9% 정도 신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國內 5%, 輸出 9%의 신장 결과 생산액은 5兆 8,000億圓 정도로서 7% 전후의 증가가 예측된다.

□ 回復되고 있는 오디오

다음으로 금년의 과제가 있다. 국내에는 平均單價의 下落 傾向을 어떻게 막느냐가 최대의 과제이다. 가격하락의 선두에 있는 컬러TV는 작년 하반기부터 下落방지를 위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상품에도 어떻게 미칠 것인가? 數量景氣를 피하게 될 것인가가 문제이다. 또한 약3년간 계속하여 低調한 오디오 市場을 보면 금년에는 回復을 보일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市場에서 늘고 있는 것이 헤드폰 스테레오 플레이어, 空오게에 크나큰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하여 海外市場에서 변하지 않는 貿易摩擦問題가 불안요인이다. 해외제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은 日本으로부터 수출증대에 따라 自國의 同種産業의 減産, 고용감소 등을 이유로 하고 있다. 무역적자의 확대라는 전체 경제로부터 수입제한이라는 색채를 강하게 주게 되는 것이다.

家庭用機器 生産의 해외생산도 종전과 같은 수준은 금년에도 계속될 傾向이다.

□ 84年 生産展望

작년의 전자공업 생산액은 12兆 4,000億圓(추정)을 돌파하여 전년비 14% 이상으로 두자리 성장을 확보하였다.

이 가운데 VTR, 컬러TV 등 가정용 기기는 한자리 숫자에 머물렀다. 가정용기기는 재작년에 前年實績을 하회하였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3兆 5,233億圓이 되어 작년에도 수량베이스에서는 전체적으로 20% 전후의 신장을

보였으나 금액베이스에서는 8~9% 増加로 추정되는 3兆 8,150億円이 되었다. 따라서 數量 景氣라 볼 수 있다. 수량경기로 볼 때에는 컬러 TV에 있어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다소 개선되는 경향이 있으나 업계에서는 하락방지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수량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그대로 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成熟商品에 있어서는 코스트 다운 경쟁의 격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전자공업에 접하는 가정용기기의 비중은 지난 10년간을 본다면 테이프레코더, 오디오기기 등이 국내, 수출 함께 好調여서 76년에 40%를 기록하였으나 그 후로는 서서히 내려가고 있으며 77년에는 産業用機器에 그 자리를 빼앗겼다. 그런 후 81년에는 VTR의 보급이 급속하게 높아지므로서 일시적으로 산업용기기의 생산액을 앞질렀으나 작년, 재작년은 구성비가 내려가고 있다. 작년말의 일본전자기계공업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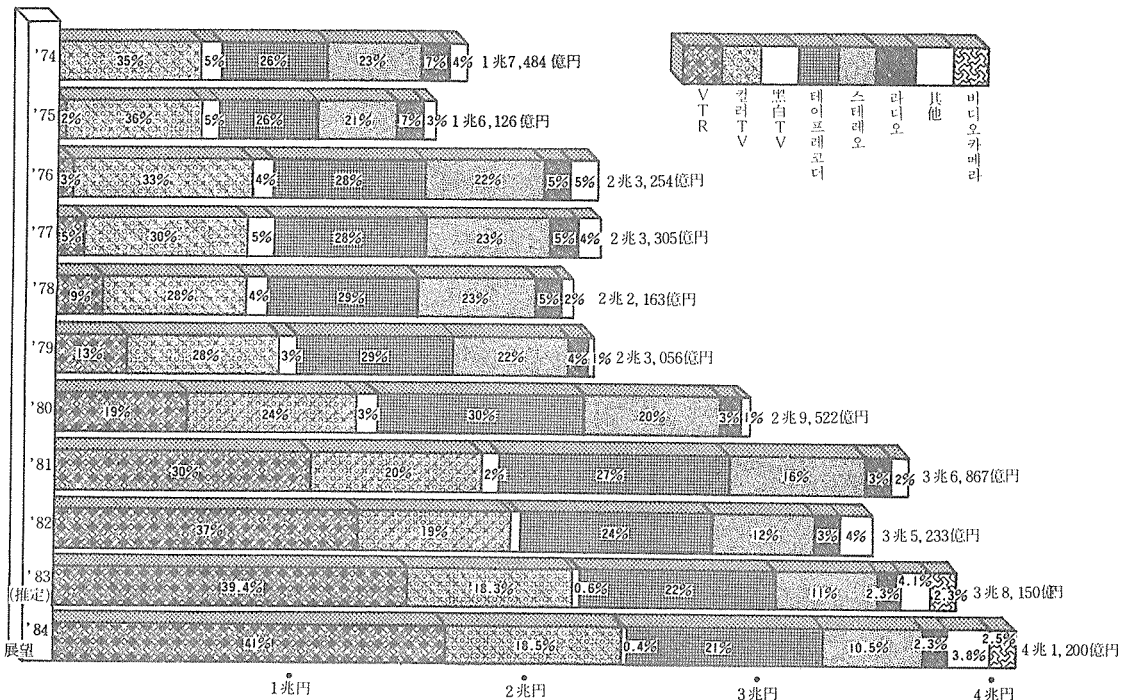
분석한 산업전자기기의 중기 수요전망에 따르면 동부문은 금후 평균 신장률 13.3%를 하한으로 하며 가정용기기는 단기적으로 보면 동신장률은 두자리 성장을 함께 할 것이다. 다만 中期 이상은 각종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그 단말기로서 가정용기기는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가정용기기에 있어서는 VTR 중심의 움직임에 틀림없으나 여기에 컬러 TV, 테이프레코더, 오디오 등이 어떻게 健闘하느냐가 焦點이 되고 있다. VTR에 있어서 보면 작년의 일본의 생산대수는 1,760萬臺로 보이며 금년의 예상은 2,000萬臺를 넘을 것이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LA 올림픽에 注目

미국의 수요가 계속 늘고 있으나 4년에 한번씩 열리는 올림픽이 금년에 LA에서 개최되므로 日本 家電메이커는 크나큰 주목을 하고 있다. 歐洲에 있어서는 작년말에 日, EC 정부간 교섭의

家庭用 電子機器의 生産額 推移(曆年베이스)



特別企劃：1984年 世界市場을 총점검한다

결과, 일본으로부터의 완성품 수출은 395萬臺, 半製品(샤시, 키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110萬臺를 넘지 않는다고 결정하므로서 總輸出 限度는 550萬臺이다.

□ 국내는 480萬臺

일본의 마켓트는 본격적인 보급기에 들어가 各社의 豫測을 정리하면 금년은 460萬~480 萬臺로 보여진다. 기타 지역도 순조롭게 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것로부터 미국용이 어떠한 규모가 될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현지메이커는 없고 모두 日本製가 OEM 供給이다.

□ 美國의 보급률은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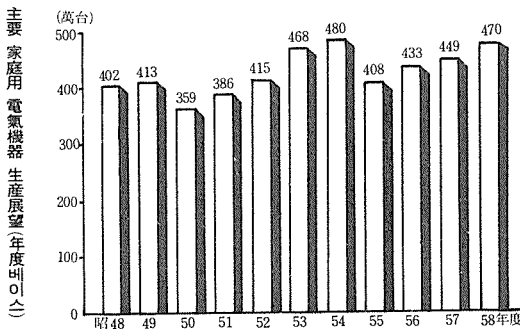
작년까지 미국의 VTR 보급률은 15% 전후로 추정되며 美國用은 작년 530萬臺에 대하여 금년은 600萬臺를 넘을 것으로 기대되며 LA 올림픽 개막전까지 급신장할 것으로 보인다.

歐洲는 前述과 같이 550萬臺, 기타지역도 작년의 550萬臺로부터 금년은 600萬臺를 넘을 것으로 보여 700萬臺 가까이 까지 기대되고 있다.

□ 各社 모두 增産體制

이러한 것을 모두 합계하면 總需要는 約2,200萬臺가 되어 生産도 거의 이것에 맞추게 될 것이다. 이미 VTR 各社에서는 작년말까지 增産體制를 갖추었으며 다시 금년 上半期에 새로운

電氣冷藏庫



工場 新設, 라인증설 등을 계획하여 需要增加에 대응하고 있다. 컬러TV에 있어서는 작년 1,300萬臺를 넘었으므로 금년은 微増을 전망하

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수요가 過半數를 占하므로 작년은 765萬臺 규모로 사상 최고가 되었으나 금년은 보합수준 내지 微増을 전망하고 있다. 수출에 있어서도 주요 선진국이 거의 보합세의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 中共,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用이 好調이다. 거기에 香港, 西獨用 등도 順調롭게 늘 것이므로 전체로는 두자리가 늘 것이다. 그래서 금년은 작년비 約10% 增加의 1,420萬臺~1,430萬臺로 전망되고 있다. 金額베이스로는 뉴미디어 對應 등으로 附加價値가 높아져 微増할 전망이다.

3. 家庭用 電氣機器

가정용 전기기기는 성숙상품이 많아서 그것만으로 경기의 변동을 좌우할 경향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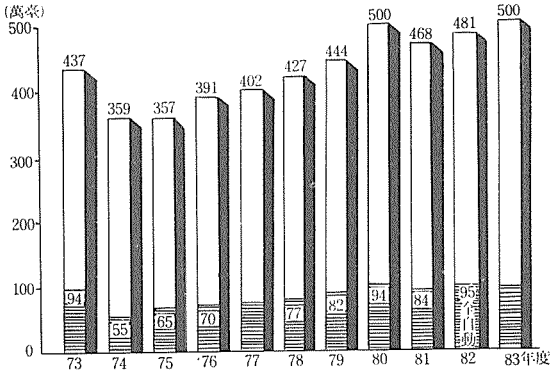
□ 렌지의 구성비는 10%

지난 10년을 보면 그래프에서와 같이 절대액에서 순조롭게 늘고 있으나 오일쇼크 後의 75년은 신장률에서 마이너스 11.1%이다. 그 후 회복되어 두자리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계절적 요인으로 80年度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이것이 2年 계속되어 82년에는 약간 회복, 83年度도 여름상품인 에어컨과 好調의 난방기 등이 7~8%의 신장이 전망되었다. 금년(84.4~85.3)은 총액으로 1~2%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또한 83년에 주목되는 것은 電子렌지이다. 輸出은 미국용을 중심으로 急増하고 歐洲도 영국용이 순조로운 추이를 보여 작년은 화이트 상품의 單體輸出에서 처음으로 1,000億円 상품이 되었다. 또한 국내도 100萬臺가 넘어서 합계로 370萬臺~380萬臺에 달할 것으로 보여 가정용 전기기기 생산액의 10%를 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가정용 전기제품 가운데 품목별로 보면 에어컨(윈도, 세파레이트型)이 생산액 톱으로 구성비 약 25%, 냉장고 약 23%, 다음으로 전자렌지가 11%이상, 세탁기가 약 8%로 되었다. 주요제품별로 작년과 금년의 생산을 보면 전자렌지는 작년 370萬臺~380萬臺이고 금년은 국내

에서 微增으로 보여진다. 수출도 각사 모두 현지 생산분을 강화하며 작년과 같은 신장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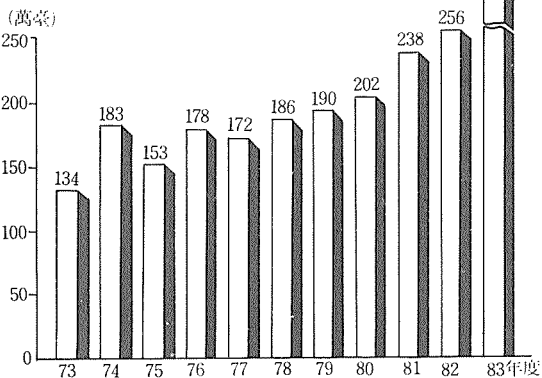
電氣洗濯機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400萬臺가 하나의 목표로 되어 있다. 금액으로는 2,200億圓 전후가 될 것이다.

세탁기에 있어서는 작년 490萬臺~495萬臺로 추정되며 국내는 거의 보합수준으로 보인다. 수출이 늘어날 전망을 보면 5百萬臺를 넘을 것이 확실하며 동남아, 中近東 등에서 주요 국가별로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거리이다. 금액으로는 1,400億圓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냉장고는 지금까지 大型化가 이루어져 單價 上昇되고

電子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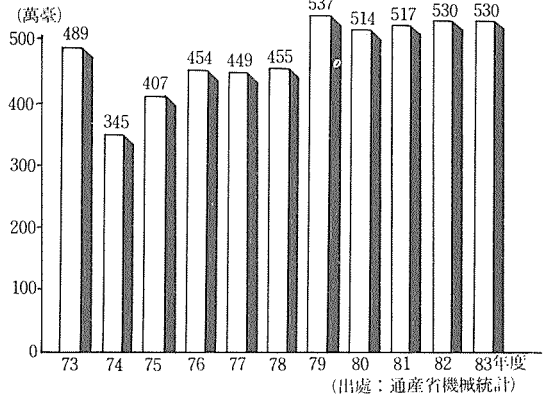


수량으로도 5~6%의 상승으로 好調의 추이를 보일 것이다. 83년은 約 460萬臺, 約 3,860 億圓이 되었다. 금년은 물량면에서 거의 보합세의

460萬臺 強이며 금액으로는 微增의 3,900 億圓으로 전망된다. 전기청소기는 지금까지 거의 변화가 없으나 작년은 532萬臺~533萬臺, 금액베이스로서 680億圓이 될 것이나 금년은 거의 같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기타에서는 계절상품의 난방기가 총체적으로 好調의 추이를 보이고 있어 主力의 家具調 난방기 및 전기카페트는 각각 두자리 신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신장이 크지 못할 전망이다.

電氣清掃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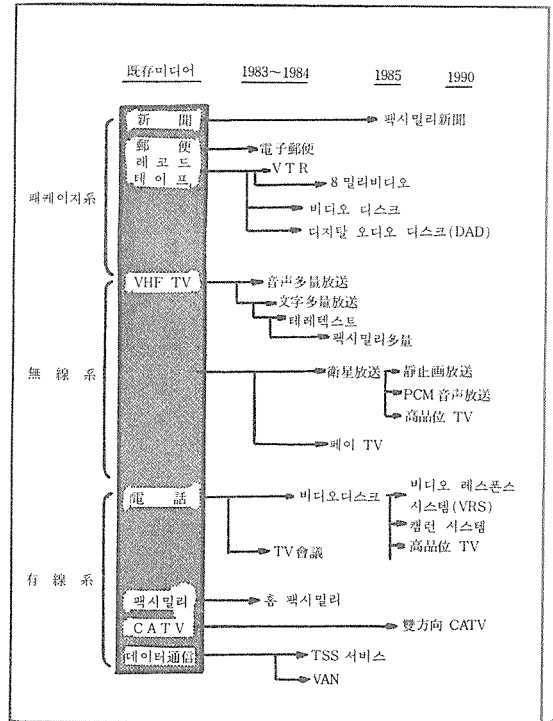


4. 産業用 電子機器

산업용 전자기기는 전반적으로 FA, OA 관련 기기를 중심으로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FA의 로봇, 정보통신, 뉴미디어 관련 컴퓨터를 중심으로한 기기의 수요는 上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984년은 전자업계에서는 낙관만을 할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따라서 업계의 견해를 본다면 샤프는 작년 성장률은 가전에서 국내 6.6%, 수출 8.1%로서 합계 7.3%이며 산업용 기기는 국내 16.9%, 수출 11.9%로서 합계 14.6%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금년은 國內家電 4.7%, 輸出 8.9%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산업기기는 국내외 함께 16%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日本電氣는 기업 등에서 분산처리 시스템의 定着의 度를 다져감에 따라 OA 네트워크化가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 OA사업 확대가

확실하며 딜러와 공동으로 업종별 애플리케이션 開發에 착수함과 함께 서브딜러의 조직화, 정보 처리 OA시스템 사업부 이외의 각업종 사업부에서도 일본어 WP 등 OA기기의 판매활동을 지원하자는 등 극히 세밀한 영업진략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계 톱 셰어의 오프콘에서는 最上位機까지 호환성을 가진 對話指導型 OS·ITOS의 채용과 대화형 유저 言語 SMART, 업무표준화 시스템 APLIK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였으며 업종 고유의 시스템에 관해 딜러와 공동으로 표준시스템을 개발해 산하의 딜러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발원조를 발족시켰다. 업무별 APLIKA도 반드시 모든 업종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표준시스템의 개발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특히 지방의 딜러 경우에는 유저數가 적지 않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시스템을 개발하여도 판매선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에서 개발하여 이것을 지방에도 유통시키게 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종래도 소프트웨어를 딜러 상호간에서 유통되는 것이 행하여졌으나 공동개발계획은 이것을 일보다 진전시켜 개발을 담당할 딜러에 일본전기가 원조를 행하여 그룹 내에서 공동으로 쓰여지게 하는 것이다. 이미 건설업, 자동차 정비업에는 완성되었으나 이것을 모든 업종에 넓힐 계획이다. 또한 同社 오프콘 1次 딜러는 약 100社에 달하였으나 কম미손딜러(서브 딜러 등)을 합치면 180~200社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딜러 지원활동은 1次 점포까지이었으나 서브 딜러, 정보점 등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조직화하여 서브 딜러의 사원교육 등에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직화정책에는 日電HE의 서브 딜러가 50社로 늘리기 위하여 여기에 새로이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일본어 WP 등과 OA기기의 보급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업종 사업부에도 WP의 판매활동을 행하는 등 고객 발품을 실시하여 수요를 환기할 예정이다. 범용 컴퓨터 ACO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도 더 세밀한 것을 바라고 있어 OA기기도 개척의 여지가 적지 않다. 타사업부에서 판매를 위

뉴미디어의 內容과 實用化時期



한 검토사항을 남기고 있으나 실시할 방향에 있다. 同社의 오프콘 판매는 작년은 전년대비 38%가 증가한 1萬 8,000臺로 추정되며 금년은 20~30% 증가한 2萬 2,000~2萬 3,000 臺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어 WP는 작년에 1萬5,000 臺 가까이 추정되고 금년은 업계에서 2위를 확보할 의욕에 차 있다. 판매를 중시하는 경영층의 방침으로 소위 캠페인판매의 면에서도 적극책이 주목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5. 뉴 미디어 本格 스타트

컬러TV, VTR을 中心으로 한 가정용전자기기의 성장은 뚜렷하며 작년은 約 3兆 8,000 億圓 이상의 생산규모가 되었다.

금년도 작년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신장률이 전망되며 총액으로는 4兆 1,000 億圓을 넘을 것으로 予測되며 이것은 기존상품의 것이나 이수

년간에 등장한 상품으로서는 VD(Video disc), CD(Compact disc) 등이 있다. 여기에 다시 8 밀리 VTR, DAT(Digital Audio Taperecorder) 등의 상품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文字多重放送, 衛星放送, 가을이후의 Captain 시스템 등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뉴 미디어라고 말하는 것도 이와 같은 패키지계의 미디어, 無線系の 미디어, 거기에 有線系의 미디어로 大別할 수 있다. 이러한 미디어를 유효하고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것에 따라 세계의 가정용 전자기기의 시장은 다시 확대 발전할 것이다. 앞으로 10년의 中·長期需要 展望을 보아도 이러한 뉴 미디어의 광범위한 이용을 위한 각종 단말기의 개발, 상품화에 따라 크게 성장할 것으로 予測된다. 이와 관련하여 컬러TV, 오디오 등의 상품은 10年間に 약 3%의 성장, VTR, VD, CD시스템 등의 비교적 새로운 상품을 덧붙인다면 약 4%強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각종 상품이 덧붙여진다면 10%로 두자리 성장률을 전망한다. 이것은 앞으로 10년의 세계 소비지출의 신장이 약 8%를 상회할 것이므로 1990년에 있어서 가정용전자기기의 수요는 실제로 총액 약 45兆円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뉴 미디어의 본격적인 스타트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어떤 구체적인 숫자를 나타낸 하나의 試算을 소개하여 본다.

라디오, 테이프레코더, 컬러TV 등을 기존상품이라 부르며 현재 성장단계에 있는 VTR, CD시스템, VD시스템, 비디오카메라 등을 유망 기존상품이라 부르며 현재 연구 개발이 진행되는 금후 상품화가 기대되는 것을 新商品이라 부르며 신상품은 앞으로 10年 동안에 約 20兆円의 시장규모가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기존상품은 현재의 마켓트가 約 16兆円, 10年은 約 20兆円에 달할 정도이다. 유망 기존신상품으로는 현재 約 1兆5,000億円정도, 10년후에 약 3배의 5兆円이 전망된다. 이러한 예측으로부터 보아도 유망 기존신상품은 물론 신상품에

대한 기대는 필연적으로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상품에도 어떠한 것이 발전할 것인가? 그때 가정용전자기기의 마켓트는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 지금부터 정보의 안테나를 넓히고 흡수하며 습득할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각미디어를 분류하고 그것에 따른 각종 新商品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 뉴 미디어는 무엇인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大別하여 패키지계, 無線系 및 有線系로 나누어 진다. (圖参照) 패키지계에는 기존의 상품으로서 레코드, 테이프 및 活字媒體가 있으며 기존 신상품으로는 VTR, VD, DAD, (CD 및 VHD 등) 등이 있으며 VTR은 이미 가정용 마켓트의 37~38%를 점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의 연장선상에 8밀리 VTR이 있으며 相關상품으로서의 테이프, 비디오 카메라 등이 있다. 無線系에는 音聲多重放送을 비롯하여 작년 가을부터 스타트한 文字放送, 금년 1月 하순에 쏘아올릴 예정인 일본의 최초 방송위성 BS-2a에 의한 위성방송이 있다. 또 pay TV 등이 있다. 위성방송에는 靜止畫放送, PCM음성방송, 고품위TV시스템 등의 실험이 시작되었으며 그 2~3年後에는 실용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가 뉴 미디어 가운데 가장 시장이 커질 것이며 업계의 기대또한 크다.

有線系에는 電話, 팩시밀리, CATV, 데이터通信 등이 있으며 현재 비디오 디스크, TV 회의 등은 실용화되어 CATV도 각종 서비스가 전개중이며 홈 팩시밀리 시대가 임박하여 오고 있는 것이다. 그것에는 이러한 뉴 미디어라 불리는 분야와 현재의 각종 전자 기기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또한 신상품은 뉴 미디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면 컬러TV에 있어서 보면 뉴 미디어 시대에 들어가 보다 大型化되고 있으며 부가기능으로서는 이미 高精細度化, 퍼스콘TV, 문자다중TV, 프린터 기능付TV, AV 결합기능 등이 개발되어 일부 상품화되고 있다. 특히 Captain 對應, 雙方向畫

像傳送用, 위성방송용, 디지털방송용, 다기능 디지털TV 등이 현재 개발중에 있다. 年内에는 이 가운데 어떻게 상품화하느냐가 문제이다. 라디오에 있어서는 현재 FM局이 스타트하고 있으나 새로운 움직임으로서 AM 스테레오 방송화 긴급경보방송시스템의 도입 등이 있다. 테이프레코더에서는 이미 콤팩트 기능이 정착, 가변속 재생도 기술적으로 확립되고 있으며 금년 6 월에는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레코더(DAT)의 표준화로 결정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디지털시대를 맞고 있다.

스테레오에 있어서는 이미 CD대응기능, AV 결합기능 등이 있으나 금후 기대되고 있는 것으로는 PCM 방송대응, 마이크로 카세트의 하이파이화, Full Digital Audio System에의 발전 등이 있다. 유망기준신상품 가운데에는 가까운 장래에 8 밀리 VTR의 상품화, VD 및 CD의 녹화, 녹음(글씨넣기, 글바꾸기) 기능 부가 등이 기술적으로 확립되어 상품화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일부 시작단계를 마침으로서 시장성, 양산화기술의 확립 등으로 상품화가 가까워 오고 있다.

6. 用途·目的別로 본 今後의 有望分野

지금까지 금후시장의 개척과 확대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보면 가정내 정보단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인하우스 커뮤니케이션시스템, 가정내사무, 학습기기, 하이파이비디오기기 및 포켓타블기기 등이 있다. 그 가운데 몇가지를 더욱 상세히 소개한다.

○가정내정보단말

△전탁타이프 정보단말=단말의 사이즈는 전탁과 나란히 出力이 가능하며 정보서비스 센터와 접속되는 회화형의 전탁도 고려되고 있다.

△전화타이프 정보단말

단말은 전화와 같은 크기로 디스플레이도 할 수 있으며 出力도 가능하다. 표시기능전화 혹은 소형 Captain 단말로서 사용된다.

△TV타이프 정보단말

CRT에 의한 動畫表示機能을 가지고 컬러 프린트 出力도 가능하며 Captain 단말에 프린터 기능이 부가되는 가정내 정보단말기이다.

△퍼스콘타이프 情報端末

정보서비스 센터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단말측에서 메모리기능과 처리기능을 가진 회화형의 단말기

△UEF (Universal Electronic File)

가정용 전자화일링 머신으로 音聲, 데이터畫像情報의 기록을 할 수 있다.

□entertainment System

△高品位TV (HDTV)

주사선이 1,000本이상으로 고품위화상을 실현할 TV이다.

현재 일본에서 NHK가 주사선 1,125本 방식을 제창하고 유럽방송연합(EBU)은 1,250本 미국에서는 CBS가 1,050本방식으로 실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2~3年안에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高品位畫像用비디오 디스크 VTR

고품위TV用의 畫像이 各各 기록될 수 있다.

△VDR, ADR

各各 글을 써넣는 기능이 있는 비디오 디스크, 오디오디스크 레코더이다.

△大畫面 벽걸이TV

大畫面으로 얇은 薄型, 輕量으로 천정과 벽에 붙일 수 있다.

△메모리기능付 TV

모든 영상신호를 디지털處理化한 디지털TV가 개발되고 있으며 단시간의 플레이백이 가능한 TV로서 slow-motion, still 표시 등이 가능하다.

□In-house Communication System

△인텔리전트 홈 시스템

防犯, 防災, 에너지 콘트롤 등의 시스템을 포함하여 홈 일렉트로닉스에 일부 실용화되고 있다.

△휴대용 홈 콘트롤 단말

밖으로부터 각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는 휴

대용 단말, 전화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電子留守番器

VTR 등을 이용한 電子的傳言板, 회화기능이 있으며 음성인식기능도 있다.

□ 家庭內事務, 學習機器

△ 家計計算支援 시스템

△ 프로그램자동 작성기·언어교환기

△ 電子黑板

△ 音聲入力타이프라이터

△ 發音듣고 판단하는 장치

△ 키보드리스 퍼스콘=손으로 글쓰기, 음성 입력가능한 퍼스콘

△ 음성입출력 가능 번역기

□ 하이파이 비디오 기기

△ 高品位TV

△ 高品位畫像用비디오 디스크·同VTR

△ 애니메이션 作成機

VTR과 TV로부터 入力, 또는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畫像情報의 처리가 가능한 비디오 편집기이다. 업무용으로 이미 이용되고 있으며 금후 일반 유저에도 손쉬운 가격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 VTR 편집장치

이미 비디오관련 악세사리로서는 고속더빙 시스템과 인한사, 컬러코렉터 등이 상품화되고 있다.

△ 立體TV

△ 電子 카메라=현재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필름대신 磁氣디스크에 의하여 CRT 등으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 포켓타블 機器

△ IPE (인텔리젼트 포켓타블 이퀴브먼트)

多機能電卓으로 되어 있으며 데이터 베이스로서 또는 계산기로서 쓰여지는 컴퓨터이다. 일부 실용화되고 있음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카드 타이프로서 몇개의 카드전탁을 가지게 된다면 일상생활에는 곤란함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 포켓트無線機

현재의 포켓트 벨의 기능이 확장된 無線機이

다.

이상 주된 상품을 소개하였으나 이러한 것이 언제나 고정개념으로 되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편의상 패케이지系, 無線系, 有線系 등으로 나누어진 뉴미디어 체계도 각各司의 단말을 복합화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디스플레이로서 컬러TV는 어떤 체계에 있어서도 중심적 존재가 된다. 今後需要가 확대되고 있는 신상품 분야에 있어서도 그 태반은 컬러TV(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으며 大畫面벽걸이 TV, 고품위TV, 테이블 톱비디오 프로젝터, 立體TV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 컬러TV는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사실로서 뉴 미디어의 核은 바로 컬러TV(디스플레이)라고 말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다만 당면한 것은 모든 미디어에 대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나 콘버터를 중개하여 디스플레이되어 서서히 컬러TV를 중심으로 복합화되고 있다.

7. 部品·材料

일반전자부품 각사는 금년 활발한 판매 계획으로 임하고 있다. 이것은 작년 봄부터 急伸張하고 있는 受注의 高水準이 1년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중하여도(前年比) 10% 增加는 확실하다. 20% 증가 이상을 예상하는 것도 많다. 작년말에 발표한 電子工業會의 생산예측에 의하면 일반전자부품의 신장률은 10.5% 增加이었다. 또한 電波新聞社가 주요 메이커를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에도 두자리 신장률을 예상하는 메이커가 全體의 90% 이상을 占하고 있으며 1年前과는 많은 양상이 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금년 3月期の 판매고에서 前年比 약 35% 증가한 2,500億円이 확실시되는 알프스전기는 2月경부터 다시 部品需要는 상승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期에도 15% 신장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판매고에서 보면 2,900億円이 되며 신장률은 20%까지 되어

한번에 3,000億圓臺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 同社에서는 특히 映像, 情報關聯機器 및 자동차관련의 수요확대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松下電子部品은 今年(11月期)의 판매고로서 前期比 20%增加의 3,900億圓을 계획하고 있다. 동사의 경우 3개년 계획으로 86年 11月期에서 5,200億圓을 목표로한 작년 여름부터 실시에 들어간 기구 개혁후 아주 도전적인 사업계획안이 신청되는 등 5,700億圓이 새로 목표로서 설정되고 있다. 材田製作所는 금년 3月期の 판매로서 前期比 16% 증가의 1,077億圓을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今期 중간결산 이후 판매기준을 변경한 숫자로서 종래의 방식에는 137%의 1,273億圓이 된다. 금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숫자는 미정이나 20% 前後의 신장을 보일 것이다.

星電器製品의 금년 3月期는 판매 400億圓으로서 前期比 139%를 예상하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85年度에는 두자리臺의 신장을 보일 것이고 여름이후는 예상을 넘을 것이다.

콘넥터 최대메이커인 EMB는 상향수정을 거듭하여 前12月期는 前年比 약 40% 증가의 410億圓~420億圓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今期도 100億圓 이상의 상승을 계획하고 있다. 같은 콘넥터 메이커인 日本壓着端子販賣는 금년 7月期에 상향수정한 前期比 30~40% 증가의 244億圓 전후를 전망하고 있다.

콘덴서 메이커도 활발한 매상목표를 세워 놓

고 있다. 日本케미컬은 今年 3月期 430億圓 이상의 판매를 전망하고 있으며 85年 3月期에는 최저로 10%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上半期에는 高成長을 기대하므로써 스위칭式 電源, 인버터用 등 電源用的 大容量·大型알미늄 전해 콘덴서에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 일본콘덴서공업도 금년 3月期에 400億圓의 前期比 22% 증가를 예상하고 85年 3月期도 10%전후의 신장을 전망한다. 에루나는 금년 3月期の 판매고가 期別 예상을 30億圓 증액 수정한 230億圓에 달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크게 설비투자를 하므로 85年 3月期の 판매고는 적어도 10%臺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국내는 신규 유저를 개척하고 해외전략도 강화 대상으로 하고 있다. 田淵電機는 금년 7月期에 있어서 當初 前期比 22% 증가의 265億圓으로 상향수정한 31% 증가의 284億圓을 계상하였다. 국내의 연결로는 375 億圓이다. 당초 17% 증가의 베이스를 年率平均 32%의 5個年計劃에 상향수정으로 단독 500億圓이 될 전망이다. 松尾電機는 금년 11月期 판매만으로 前期比 121%의 105億圓을 전망하고 있다. 日本電波工業은 금년 3月期の 판매고로서 前年比 23% 증가의 1,900億圓을 예상하고 있다. 85年 3月期の 판매예상은 설비투자 등이 있으나 水晶振動子の 市場背景에서 신장이 없을 것이라는 要素도 있으나 어쨌든 20%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同社는 200億圓臺 企業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다.

